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현대 교회에 대한 진단¹⁾

이신형 (기독교학과 교수)

필자가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현대 교회에 대한 진단』이라는 제목 하에 논문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필자에게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과연 그런 글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그것은 이 글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제목으로 함축될 내용의 모호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필자에게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던 근본 이유는 제목과 부제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배타성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본 제목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른다면 구성될 글의 성격은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는 그 말에 함축된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대해 규범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고찰하는 글이 될 것이며, 반면에 우리가 부제가 암시하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한 진단이라는 말에 우리의 글이 인도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의 타당

1) 이 논문은 1993년 10월 시카고교회 기관지 <참길>에 종교개혁 특집으로 기고한 것임.

성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 그것이 어떠한 제한점이 있든지 간에, 또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든지를 막론하고 – 그 자체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사용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분석, 평가 내지는 비평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 글은 필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의 타당성을 현대적이라는 개념 하에 고찰, 또는 비평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규범으로서 사용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비판에 주저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것 이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개혁이 현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현대 교회를 비평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비평을 하려고 한다면 종교개혁의 문제점을 극복, 수정한 후에야 현대 교회를 비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반면에 종교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인정하여 현대 교회에 대한 무비판적인 적용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과연 450년 내지는 500년의 시간적, 공간적인 격차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한다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좀더 폭을 넓혀서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격차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원리인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서 있었던 시대와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다르지 않은가? 종교개혁자들이 당면했던 문제점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는 다르지 않는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가? 만약에 이조 초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강한 거부감을 갖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

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와 규범성을 은연 중에 거부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교개혁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미완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한 미완성을 현대 교회가 극복하고 종교개혁의 완성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부제에서도 함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모순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현대 교회에 대한 규범적인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현대 교회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지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신교(Protestant Church)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필자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시·공간을 추월하는 절대적인 규범으로서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절대적 규범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원리들을 – 그러나 그들이 완결시키지 못했던 – 현대 교회는 완결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치 판단하거나 또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중심권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신교라는 울타리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교

회를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정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원리를 벗어난 교회는 더 이상 개신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의미하는 교회란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막론하고 세계 어느 교회나 무론하고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를 그 교회의 기초로 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이 글의 내용은 전문적인 신학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전문적인 신학인을 향한 것임을 밝혀 둔다. 비록 이글은 구분된 구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로 종교개혁의 원리란 무엇인가? 둘째는 그것은 규범적일 수 있는가? 만약 규범적이 아니라면 왜 아니고, 만약 규범적이라면 어떠한 것이 규범적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규범적인 것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종교개혁의 원리들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세 가지 명제들을 말한다. 첫째는 오직 신앙만으로(Sola Fide), 둘째는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 셋째는 만인 제사장설(Practical Principle)이다. 첫째 명제가 내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은 모든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원인되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을 좀더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하든지, 아니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든지,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이든지, 아니면 요즘 미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동성연애자인지, 이성연애자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아무런 선재 조건이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위 이전에 인간편에서의 선행 조건이 작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은총이 되며, 절대적인 은총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래서 부분적인 은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은총을 입은 후에는 자신의 모습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Justification by Faith)이라는 것은 성화(Santification)의 선행 조건이고 성화는 의인의 결과라는 이러한 개념은 동전의 양면같이 상호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원인의 최종적인 모습이며 원인은 그 최종적인 모습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에 의해서 판명되고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조건지어지게 된다. 둘째로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명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Authority)는 성경에 근거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첫째 원리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속성을 지닌다. 즉 이 명제는 만약에 여러 가지의 다른 가치들이 상호 충돌할 경우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가치들,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받아왔던 가치들, 그 밖의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집단 또는 개인의 가치들이 성서에서 나타난 가치와 상호 충돌할 경우 기독교인이 굴복할 최종적인 가치는 성서의 가치라는 것이다. 세번째의 명제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명제이다. 이 명제가 지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Sacred)과 속(Secular)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과 속의 구별된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은연 중에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구별된 의식을 갖고 있다. 또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역시 세상은 속되다는 구별된 의식에 사로 잡힌다. 그러나 이 세번째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 자체가 성과 속으로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을 맡거나, 교회의 일을 하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성직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직분도 다 거

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것은 곧 목사나, 신부로서 그가 종교적이라고 불리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내가 회사원으로서 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른 것이나 나를 회사원으로 부른 것이나 기능상에는 구별이 있을지라도 그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명제들은 그 개별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 관계는 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인 제사장설로 귀결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굴복해야 할 최종의 권위는 성서라는 의식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의식은 곧 일상 생활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승화시키게 됨은 개신교의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3대 원리는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개신교를 확실히 구별해 내는 규범이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로마 천주교회의 구원론을 보면,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의 그 어떤 전제 조건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은총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품성 내지는 어떠한 행위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요청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은 인간의 행위의 전적 무용성을 주장하는 종교개혁과는 상반되는 개념임은 분명하다.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종교 개혁의 원리에 비춰 보았을 때 로마 천주교회는 개신교와 구별된다. 물론 로마 천주교회도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에서 본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 입장은 성서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또는 성서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위 - 교회 회의의 결정, 전통 등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교회의 가르침이 성서와 어긋날 때, 또는 성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 종교개혁의 입장은 성서의 권위에 의거해서 그러한 것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회의 입장은 교회의 가르침 또는 전통이 성서의 권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서를 공인한 것이 교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것은 기독교인의 종교적 삶에 대한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번째의 원리를 보면 종교개혁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은 종교적이고 어떠한 영역은 비종교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그러한 구분을 본다면 그러한 구분은 기능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구분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과 속, 성직자와 비성직자, 교회와 국가, 계시와 이성 이러한 구분은 본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종속 그리고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한다. -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들어 왔고, 그리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과연 종교개혁적이었는지 아니면 로마 천주교회적이었는지를 ...

두번째로 우리가 다를 문제는 로마 천주교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규범적으로 적용했던 종교개혁 원리들이 만약 개신교 자체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과연 규범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먼저 기술하면 그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 혹은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개신교 교회 내의 분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실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신교 내의 분파들을 놓게 한 원인적 제공을 필자는 종교개혁 원리의 모호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 분명하게 작용했던 세 가지 원리들은 개

신교 내부 자체에 대해서는 혼동과 무질서를 놓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개신교 분파들을 그 어느 분파를 막론하고 이신칭의의 이론, 즉, 오직 신앙만으로라는 원리에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Radical Reformation 혹은 Anbaptists(재세례파)라고 불리우는 분파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신의 실존적인 신앙의 결단이 수반되지 않은, 또는 신앙의 결단을 수반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을 – 비록 그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구원에 대한 전적인 감사가 결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 진정으로 회개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은 오직 신앙만으로라는 명제의 모호성에서 파생된 귀결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듯이 신앙은 개인적인 확신과 종교적 체험에 근거한다는 인간의 주관성에 이신칭의 교리를 정초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의 원리의 근본적인 의도는 인간의 주관적인 종교적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객관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객관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명제도 역시 개신교 내부의 분파를 조장한 요소가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명제를 제시했을 때에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서가 기독교인의 종교적 삶을 지배하는 원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했을 뿐이지, 성서의 무오영감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치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듯이 그렇게 성서의 무오성을 믿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에 여러 가지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견지했던 입장은 성서는 비록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안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한 바른 신학적 안내는 그들이 주장한 종교개혁의 첫번째 원리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간의 무지를 조장하는 것은 – 성서에 의문이 있을 때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인간의 지성을 억누르는 행위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것 – 비성서 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 개혁 후의 교회는 각기의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 고백서에 의해서만 성서를 해석하게 하는 요구를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서를 규범으로 삼아 자신들과 다르게 성서를 이해하는 것을 – 사실은 그것이 보다 종교개혁의 원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 금지 내지는 비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왔다는 사실은 종교개혁 후의 교회는 스스로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저버렸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의 세번째 원리인 만인 제사장설도 종교개혁 내의 교회들에 있어서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과 속의 분리, 성직자와 평신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이중적 구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되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하나님에 대한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와 반대로 들어 왔거나, 가르침을 받아 왔거나,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우리 스스로 그 원리를 버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규범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고찰했듯이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그 적용 대상에 따라 규범성을 유지하거나 상실당해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숙고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의 원리의 모호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필자는 그 가능성은 풀 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

속에서 찾아 본다. “개신교의 원리는 모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규범이다.”(Protestantism as a principle is eternal and a permanent criterion of everything temporal).²⁾

그리고 “이신칭의라는 종교·윤리적인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교·지적인 삶도 의미한다. 죄 아래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자들도 신앙을 통해서 의인화된다.”(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through faith refers not only to the religious-ethical but also to the religious-intellectual life. Not only he who is in sin but also he who is in doubt is justified through faith).³⁾ 종교개혁의 원리의 현대적 증명은 그것이 개신교의 항구적인 규범임을 재발견하는 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항구성의 원리는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원리를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를 비판하고 종교와 세속의 영역의 철폐를 주장했을 때 그들의 세계는 유럽에 국한된 기독교 세계였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종교 다원화의 현상, 그리고 세계 공동체라는 의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는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우주의 아주 작은 조그마한 별에 지나지 않다는 의식은 그들에게는 결핍된 요소였다. 오늘날 달라진 우리의 세계관은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교개혁 원리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여기서 필자는 더 이상의 그 어떠한 대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답은 각자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정초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원리들을 현대적 상황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된 항구적인 규범으로서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

2) Paul Tillich, *The Protestant Era: What is wrong with christain civilization? Does Protestantism need a Reformation?* ed. James Luther Adams (Chicago: The Universtiy of Chicago Press, 1948), p. xii

3) *Ibid.*, p. xiv

다고 보여진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에 실패한다면 로마 천주교회화한 우리의 교회는 개신교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회복하기란 소원한 일일 것이다.